

변성발성장애 환자에 대한 음성치료의 효과

표 화 영*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음성언어치료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변성발성장애는 변성기의 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음도저하를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음성장애의 한 가지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제 3형 갑상연골성형술을 통한 수술적 처치나 음성치료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음성치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음성치료에 의한 변성발성장애 치료의 효율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변성발성장애를 진단받고 본치료실에서 음성치료를 받은 환자 7명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 전, 후의 음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음성 분석은 CSL(Computerized Speech Lab., Kay Elemetrics, Co.) 중 MDVP(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에 의한 음향학적 분석과, Aerophone II(Kay Elemetrics, Co.) 중 Maximum Sustained Phonation을 통한 공기역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본 주파수(F0)는 치료 후에 평균 65 Hz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저하를 보였으며, 최장발성 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은 4.57초 증가, shimmer는 1.644% 감소하였는데, 이 두 수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jitter는 0.499% 감소, NHR은 0.0123 증가, 평균호기류율(Mean Flow Rate)은 27.71 ml/sec 감소하여, 여섯 개의 검사 항목 중 유일하게 NHR은 치료 전보다 악화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세 항목들은 치료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